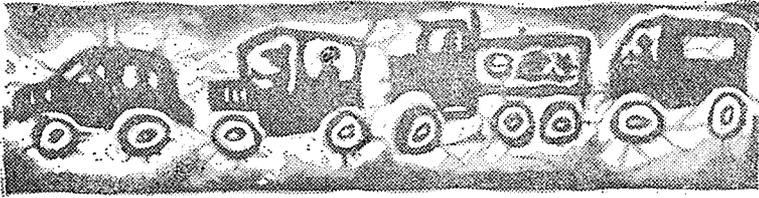


이 달의 주요 뉴스와 치협이 주변



□ 첫 시·道支部長會議 開催 5月 27日 世宗호텔에서 建國 30周年記念 綜合學術大會 豫算 2千 65萬圓 策定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하얏트 호텔」에서 제30회 종합學術大會를 개최키로 한 齒協은 이대회 명칭을 「建國 30주년 기념 종합學術大會」로 정하고 27일 세종호텔 소나무홀에서 개최된 금년도 제 1회 전국市道支部長 연석회의에서 이에따른 행사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2천 65만원의 豫算을 책정했다.

대의원총회의장단·감사단·전국 시도지부장·집행부등 33명이 참가한 이날 회의서는 앞서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大會행사일정, 행사계획 등을 확정했는데 특히 外國 著名인

사 초청에서는 美國 2명, 日本 및 스위스에서 각 1명, 海外교포 약간 명을 초청키로 했으며 등록금 8백 65만원(회원 7백만원, 기공사 1백 40만원, 위생사 25만원, 찬조금 1천 2백만원 등)으로한 2천 65만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서 집행부는 총회 이후 활동상황 및 집행업무 현황을 보고했으며 ① 78년도 회원신상 신고 ② 회비 및 기부담금 징수 남부 ③ 입회비·회관 건립비 등 미납금 징수남부 등 협조사항도 시달했다.

□ 即席 찬조 1백 61만원, 6月 25日 現在 2백 21만원 齒協史上 처음, 學術祭典에 큰 呼應

齒協史上 처음으로 즉석에서 찬조금 1백 61만원이 모아졌다.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建國 30주년기념 종합 學術大會 개최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키 위해 27일에 열린 올해 첫 시道支部長회의에서 池憲澤회장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30

주년을 기념하여 全齒科界의 「덴탈·퀘스티날」로 개최되는 이 대회에 전국 회원이 등록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는데 이에 호응하여 즉석에서 李鍾守 대의원 총회 의장이 제 1호로 참가 등록을 하면서 종합 학술대회 개최

에 따른 찬조금으로 20만원을 내놓았는데 이어서 金宗瑞 부의장이 10만원, 池憲澤 회장이 30만원, 申旻澈·李在賢 부회장이 각각 10만원, 金學聖 忠北회장(齒協감사 겸임)이 20만원의 찬조금을 냈으며 金賢九 慶北회장, 宋鉉重江原회장, 盧地燮 全南회장, 丁達秀·劉寅榮감사, 朴忠鎬 총무이사 등이 각각 10만원, 金圭燾 保險이사가 1만원, 卍後文洪祚 大韓齒友會 會長이 20만원, 朴性窩 서齒會長 10만원, 朴又龍 齒科醫院長, 趙鋪起 同仁齒科醫院長, 梁厚烈 濟州會長이 각 10만원의 찬조금을 내놓음으로써 齒協 創立 이래 처음으로 2백 21만원의 찬조금을 거두는 기록을 세웠다. (1978. 6月. 25日 現在)

또한 이로써 建國 30주년기념 종합학술대회 등록은 제 1호 李鍾守 의장을 비롯 ② 金宗瑞 ③ 金圭燾 ④ 池憲澤 ⑤ 申旻澈 ⑥ 李在賢 ⑦ 金學聖 ⑧ 金賢九 ⑨ 宋鉉重 ⑩ 盧地燮 ⑪ 丁達秀 ⑫ 劉寅榮 ⑬ 朴忠鎬 회원 등 13명이 등록을 마치므로써 그 출발부터 好調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여했던 각市道

支部長들은 歸任 후 이사회 등에서 찬조금 문제 등을 논의, 적극 협조

할 뜻을 다짐했으며 齒協理事들도 찬조금을 거출기로 했다.

의 건강한 치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치노인상 수상비결을 말했다.

□ 保社部 79년도 예산 요구액

1천 3백억원 規模

정부는 오는 9월 정기國會에 제출할 79년도 일반회계 豫算규모를 올해보다 약 25% 증가한 4조 4천 억원선으로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말 經濟企劃院에 제출된 각 部處의 내년도 豫算의 요구액은 일반회계 6조 9백 69억 5천만원(금년 대비 73.9% 증액), 특별회계 8천 7백89억 8천 5백만원(29.2%증) 기업회계 2조 1천 9백40억 2천 2백

만원(27%증)으로 나타났다.

保社部는 올해에 이어 79년도에도 社會개발중점시책에 따라 ① 醫療保護 및 醫療保險사업 등 의료보험의 확충 ② 公的扶助사업확대 ③ 환경보전 및 위생시설 확충 사업을 중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에 따라 1천 3백여원 규모의 79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식은 주식회사 럭키 히 신규 사장, 대한중외계약 이 종호 사장, 신흥 치과산업 이 영규 사장, 월간 치과계 손 국원 편집집국장에게 감사패 수여를 비롯한 구강보건 유공자 및 건강치아 소유자에게 감사패, 감사장 수여와 푸짐한 부상이 증명됐다.

이 밖의 구강보건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진치노인

▲ 1등 조 돌에(여·65) ▲ 2등 현 영(남·80) ▲ 3등 윤 봉환(남·60).

◇ 모범진료 가족상=윤 장열, 김종규, 조 상규, 최 종목, 이 인형.

◇ 구강보건 유공자 감사패=▲ 이 세복(서울시 교육위원회 체육보건계장) ▲ 이 극배(서울시립학교 건강관리소 서무과장) ▲ 송 우화(서울시립학교 건강 관리소 치과교의)

◇ 구강보건관리 모범학교상=▲ 1등 군자 국민학교 ▲ 2등 매동 국민학교 ▲ 3등 봉래 국민학교

◇ 구강보건 유공자 양호교사 감사장=최 상옥(서울 군자국민학교) 씨 외 15명.

◇ 진치아동 서울시 각구 대표상=이 보영(서울 남대문국민학교)군 외 23명.

◇ 진치아동 국교 대표=이 남영(경기국교 5년)양 외 4백 68명.

□ 서울齒醫會 33회 口腔保健賞 시상식 盛了

健齒兒童, 健齒老人 등 선발 시상

서울市 齒科醫師會 주최 제33회 口腔保健賞 시상식이 9일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齒協 池憲澤 회장, 申旻澈·李在賢 부회장, 盧利植 서울시보사국장, 梁承禧 서울시 한의사회장 등 내빈 다수와 회원·시민·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健齒老人을 비롯 진치아동 구강보건 유공자 등을 선발, 시상함으로써 국민들의 口腔保健에 대한 관심을 크게 촉구했다.

『이 깨끗 맘 깨끗 나라 깨끗』을 캐치·푸레이즈로 대한 치과의사협회 후원, 주식회사 럭키 협찬으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朴性窩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式辭를 통해 『치과의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노력, 질병없는 건전한 사회구현에 앞장 섰음을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움직이는 인술로서 전국 방방곡곡에 구강보건 계몽은 물론 충치없는 명랑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盧憲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은 격려사에서 『국민들의 관리소홀과 인식 부족으로 치아건강에 령점을 노출시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구강보전의 중요성과 관심도를 국민들에게 더욱 철저히 일깨워 구강질환 예방에 단전을 기하자』고 힘주어 말했고 具滋春 서울시장(盧利植 보사국장 대독)은 『진치 노인 시상을 계기로 경노사상 함양에 박차를 가하자』는 축사를 했다.

한편 이날 진치 노인 1등에 뽑힌 趙亨禮 할머니는 『이닭기는 아침 식사 후와 자기전 하루 2회에 각각 5분씩 닭는다』면서 『무슨 음식이든 먹은 후에는 물이나 소금으로 입안을 가셔내기 때문에 아직까지 32개

□ 국제齒科醫學會 東洋서 처음으로 개최

오는 80년 6월 日本 大阪에서

國際齒科醫學會(IADR) 제58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東洋에서 처음으로 오는 80년 6월 日本 大阪소재 로얄호텔에서 열린다.

창설 1백년이 넘는 국제치과의학회는 지금까지 매년 미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에서만 학술대회를 열어왔는데 한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 회

월두의 강력한 권의에 따라 58회 학술대회가 日本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대회의 실행 위원장에는 日本 齒醫學의 저명인사인 大阪大 치과대학장 河村洋二郎(구강생리) 교수가 맡았는데 현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치과의학회 대회에서는 세계 60여개국에서 1만여명 이상이 매년 참석하고 있다.

IADR이란

IADR은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의 약자로 국제치과의학회라 칭한다.

□ 徐永圭 서울齒大 同窓會長

서울大學校 총 同窓會 부회장이 피선

徐永圭 서울齒大同窓會長이 지난 달 서울大學校 총 同窓會 부회장에 피선됐다.

지난 5월 27일에 있는 서울大學校 총 동창회에서는 閔復基 회장이 유임됐으며, 부회장으로 單大에서

1872년에 창설된 IADR은 미국 시카고의 치과의사관 내에 본부를 두고 현재 전세계 52개 지부를 설치, 기초·임상을 포함한 치의학분야의 연구논문 발표 및 학술대회를 매년 1회씩 열어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학술연구에 최대의 진작을 기하는 연구 기관이다.

현재 회원 5천여명이 가입한 IADR은 지난 74년에 한국지부(지부장·丁東均)를 결성, 40여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매년 국제 치과의학회 학술대회의 초청장 등 정보 교환의 특혜를 받고 있으며
年회비는 8달러이다.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는 철학적 개념으로 認知하여 일관성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교수는 또 현재까지의 치과 분야 행정을 齒務行政이란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좁고 제한된 범위를 내포, 인식됨으로 국민구강건강 수준의 향상 도모에는 부적합, 口腔保健 행정이란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韓교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지부, 학술분과학회, 교육기관, 연구기관, 일선사업기관, 정책기관 등은 구강보건의 개발 및 확립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개발 전략과 정책 기획, 운영계획 등을 구상, 발췌해야 되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행정 운영을 토대로 구강보건 전문화가 필연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韓교수의 문제 제기에 따른 디스커션에서는 保社部적제에 구강보건국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제 1 단계로 구강보건과를 최소한 신설, 구강보건문제가 정책면에서 거의 도의시되는 오늘날 새롭고 활기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의견을 집약했다.

그런데 현재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은 局이 미국·일본·필리핀 등의 나라는 課가 설치되어 있다.

□ 矯正研修次 15日間 豫定으로 6月 15日 渡美

團長 金一奉 矯正研究所 研究院 일행 6名

金一奉 치과교정연구소 연구원들은 미국 텍사스 치과교정연구소 브로샤드 테크닉 연수차 金一奉 대표를 단장으로 林永淑(울지병원)·金貞子(서울 남정치과)·金基赫(서울 김기혁 치과)·姜九澮(서울 강승치과)·成在賢씨 등 일행 6명이 15일간의 예정으로 15일 도미했다.

이번 처음으로 갖는 해외 연수교육은 에드반스코의 일환인데 치과

교정학의 새로운 학술 정보와 교수 방법 등을 습득, 급변하는 치과교정학 교류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7월 초순에 귀국한다.

한편 김 일봉 단장은 『이번 연수교육을 기점으로 매년 정기적인 해외 치과교정연구소를 방문, 새로운 학술을 연마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습

현재 우리나라의 口腔保健행정이 부전한 요인을 목표로 설정의 미흡과 행정용어의 부적합, 통합적 운영의 미흡, 구강보건행정의 비전문성 등으로 지적, 이에 대한 타개책이 시급히 개선돼야만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대한구강보건협회가 서울치대에서 가진 「구강보건문제 정책화의 행정적 장애 요인」에 관한 학습 세미나에서 국립보건연구원 韓卿堃 교수는 구강보건 행정의 대상은 국민이고 主體는 국가이기 때문에 구강보건의 목표는 국가의 복지 행정 목표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정하

득은 물론 이에 따른 많은 슬라이드를 보충하겠다』고 渡美 소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현재 김 일봉 치과교정연구소는 예방교정과 치료교정파트로 분타, 한 기에 6명씩 6개월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齒科技工所 TO制 대폭 완화

齒科醫院 10대 1의 比率로

保社部, 技工所認定에 관한 基準 개정

齒科界의 관심을 끌어 오던 齒科技工所 TO制가 대폭 완화됐다. 保社部는 지난 75년 1월 31일 제정 시행해오던 「齒科技工所 認定에 관한 기준」(保社部 훈령 제191호)을 지난 6월 1일 개정, 훈령 제260호를 공포 시행했다. <관계規定 別項 참조>

이번 保社部에 의해 개정 시행된 齒科技工所 인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종래 齒科醫院 20개소에 齒科技工所 1개소의 비율로 인정하던 것을 齒科醫院 10개소에 1개소비율로 대폭 완화했으며 技工所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市(서울·부산 제외) 또는 郡에 있어서는 10대 1의 비율에 불구하고 1개소의 技工所개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칙에서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인정된 기공소는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었다.

한편 부사부의 이번 완화 조치를 치과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 기공물의 부실과 기공료의 덤핑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李誠求 대한치과 의사협회 審事理事=최근 치과기공소의 TO제 완화를 환영한다.

머지않아 실시될 국민계의료보험에 대비서 점차적으로 기공소의 증가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기공소의 충분한 설립 자본

□ 朴南洙씨 教授로

慶熙大 齒大 人事

慶熙大는 최근 朴南洙(병원장) 부교수를 교수로 李祥來(방사선과)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각각 승진, 4월 1일자로 소급 발령했다.

釜山이 4개, 大邱가 3개 정도의 기공소의 증설이 예상되고 있어 부산·대구 지역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아름다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良質의 技工物 제작에 전력하겠다.

□ 學位研究費 80만원 지급

文教部 新學期부터

文教部는 오는 새학기부터 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 않는 교수 50여 명을 선정, 1인당 80만원의 학위연구비를 지급하고 서울과 지방간의 교환교수 수요도 현재의 50에서 1백명 이상으로 늘려 이들에게도 같은 액수의 연구비를 지급키로 했다.

문교부가 학술진흥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마련한 대학교수 연구비 지원 방안에 의하면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전국 공·사립 대학교수 중 학위 취득연구 3년차 과정에 있는 6백30명을 대상으로 총·학장이 선발 추천, 50명에게 학위연구비를 지급키로 했다.

과 완벽한 시설, 잘 훈련된 기공사의 취업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이번을 계기로 부정기공물의 단절을 기대한다.

▲ 金聖培 매치기협회회장=이번 보사부의 TO제 완화는 당초 우리 협회가 주장해 온 TO제 완전해제 방침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런대로 승용이 트인 것 같아 당국에 감사한다.

우리 협회측은 앞으로 완전 해제를 위해 성의껏 노력할 방침인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 齒科技工所 認定에 관한 기준

제정 57.1.31 保社部 훈령 제191호

개정 78.6.1 保社部 훈령 제260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사법 제 2 조 5 호 및 동 시행규칙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소(이하 「기공소」라 한다) 인정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공소의 지역적 집중현상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공소의 분포 한계, 범위 및 그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공소의 인정한계) ①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서의 기공소의 인정은 치과의원 10개소에 1개소의 비율로 한다. 다만 치과병원에 설치된 기공소는 그 개설비율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② 기공소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시(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는 제외한다)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있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공소의 인정 한계 비율에 불구하고 1개소의 기공소 개설을 인정할 수 있다.

제 3 조 (신청 서류 심사 처리)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지사 또는 제 2 조에 정한 인정한계에 달하였을 경우 기공소 인정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부 칙

(75.1.31 보사부 훈령 제19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197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당시 인정된 기공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한계비율을 초과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는 그 인정한계비율 범위내에 달

할 때까지는 신규인정을 하지 아니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인정된 기공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 鄭保羅 교수 환영회 盛況, 80여 會員 참석 舊情 나뉨

6月 9日 大韓聖公會 會館에서 齒協·서울齒醫會 공동주최

鄭保羅 교수 귀국 환영회가 지난 9일 오후 7시 대한聖公會관에서 池憲澤 회장을 비롯한 회원 70여명이 참석, 화기에에한 가운데 조촐히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치과의사회가 함께 마련한 이날 환영회는 朴忠鎬총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됐는데 池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스승을 찾아 선생님 하고 부를 때』라면서 『한국치과의 산역사며 증인인 鄭교수의 귀국을 계기로 회원들은 단합된 힘과

선생의 가르침에 일로 매진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鄭保羅 교수는 답사를 통해 『선후배가 보고 싶어 귀국했다』고 울먹이면서 『하루도 조국에 대한 애국심은 변하지 않고 잊지도 않았다』고 슬피하고 『치과의사는 치과의학에도 全力하지만 일반사회에도 적극참여, 사회봉사 및 사회활동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날 환영회식장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치대 동창회, 6.9 글프동우회가 감사패 및 기념품 등을 증정했다.

□ 19개 委員會 위원 選任 끝내

齒協理事會 10개 委員會 및 9개 特別委員會

齒協은 지난 7일 제 3회 정기이사회에서 10개 委員會와 9개 特別委員會 등 19개 委員會 위원 선임을 모두 끝냈다.

새로 위촉된 각 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順>

◇ 증무 위원회 = 金英洙 徐貞姬 柳陽錫 李重熙 趙鏞起

◇ 치무 위원회 = 金一京 尹興烈 李重熙 韓章述 玄天燮

◇ 심사 위원회 = 姜俊高 金富坤 金義培 陸榮淵 徐貞姬 李豐基

◇ 학술 위원회 = 金明國 金鍾培 閔丙一 朴재仲 白東俊 徐廷勳 鮮于良國 孫性熙 吳季錫 劉東洙

李德一 李勝雨 李正植 張完植 丁東均 趙漢國

◇ 국제 위원회 = 金駿煥 方城 梁源植 李學培

◇ 재무 위원회 = 金文炯 孫五榮 趙鏞明 朱洛林 崔光哲

◇ 공보 위원회 = 高鎮洙 金一京 尹興烈 李相喆 李義雄 崔翔默

◇ 군무 심원회 = 金永善 金源奎 李基亨 李昌熙 朱洛林

◇ 자재 위원회 = 金哲偉 丁東均 池光源 韓卿燮 許研旭

◇ 보험 위원회 = 金基鎬 金鍾達 金鍾培 朴忠鎬 李正석 車秉鎭

崔在京 崔有鎭

◆ 特別委員會

◇ 정책 위원회 = 위원장 : 申旻澈
의원 : 金基懋 金東順 金仁哲 文洪祚 朴性高 朴忠鎬 徐永圭 李有慶

◇ 세무 대책 위원회 =
위원장 : 申旻澈
위원 : 姜泳圭 朴又龍 李炳五 李誠求 李夏一 朱洛林 崔光哲

◇ 협회사 편찬 위원회 =
위원장 : 申旻澈
부위원장 : 徐丙瑞
위원 : 金權洙 金義培 李德一 李豐基 李漢水
고문 : 崔曉峰

◇ 윤리 위원회 = 위원장 : 申旻澈
간사 : 李誠求
위원 : 姜俊高 金永善 金永薰 金貞林 金海晚 李豐基 張榮圭

◇ 협회지 편집 위원회 =
위원장 : 金圭植
상임위원 : 梁源植
위원 : 高在丞 朴兌源 金鍾悅 白承浩 尹昌根 曹圭澄 崔상默 崔有鎭

◇ 회관 건립 위원회 =
위원장 : 申旻澈
위원 : 姜泳圭 金基懋 金端東 文洪祚 朴又龍 朴忠鎬 李돈衡 張榮圭 崔奉燮

◇ 교육 심의 위원회 =
위원장 : 金圭植
위원 : 金鎮泰 朴재仲 劉永圭 李勝雨 李烈熙 李鍾昕 林昌潤 趙泳弼 崔有鎭

◇ 수련 병원 심사 위원회 =
위원장 : 金圭植
위원 : 朴南洙 朴忠鎬 邊龍星 梁源植 柳陽錫 尹仲鎬 李誠求 李烈熙 李重熙 趙泳弼 車文豪

◇ 간호 보조원 치과의학교육 교

자 편집 위원회=위원장: 金圭植
위원: 金守經 金淑香 金鍾達

金鍾培 孫同錄 孫性熙
李勝雨 李正석

□ 7월 6일 東大門敎會서
基督齒醫會 創立總會
가톨릭 및 基督教 總網羅,
金文祚 博士 發起

□ 救世軍 金사령관, 李烽基 會員에게 感謝牌 授與
救世軍 養老院 찾아 無料診療奉仕

李烽基씨(서울·동남치과위원장)
가 지난 1일 구세군 김해득 사령관
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救世軍은 이날 중앙회관에서 열
린 구세군악대 제계일주 환송 연주
회에서 李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

했는데 李원장은 지난 77년 12월부
터 매주 일요일마다 구세군 양노원
을 찾아 그동안 80여명의 노인들에
게 치과진료는 물론 義齒시술 등을
무료봉사, 경노상상을 높히는데 따라
이날 감사패를 받은 것이다.

韓國 基督齒科醫師會(가칭) 창립
총회가 7월 6일 오후 7시 30분 서
울 東大門교회에서 열린다.

치과의료를 통한 傳道 및 사회봉
사와 친목을 목적으로 발족케될 한
·국 기독교치과의사회는 15일 현재 전
국 치과의사 회원 중 1백여명이 가
입을 신청하고 있어 예상밖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발기인측은
아직 전국에 상당수가 누락된 것으
로 판단, 보다많은 회원 단합을 위
해 新·舊敎를 망라한 회원 확장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연락 전화는 (774) 7718.

□ 慶熙大 齒大 종합 우승

6.9祭典 全國 齒科大學 體育大會

6.9제전 전국치과 대학생 체육대
회가 지난 9일 서울대 관악 캠퍼스
종합대운동장에서 池憲澤 대한치과
의사협회장과 서울·연세·경희·
조선치대 등 4개 대학장과 1천여명
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박진감있
게 열려 경희치대가 종합우승을 차
지했다.

서울 차대 학도 호국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체육대회는 조선치대가
올해 처음으로 참가, 명실상부한
전국 치대 체육 대회로 발전했는데

각종목 경기에서

- ▲ 축 구: 서울치대
- ▲ 배 구: 서울치대
- ▲ 발야구: 연세치대(여자)
- ▲ 서전 텔레이: 경희치대
- ▲ 야 구: 경희치대
- ▲ 농 구: 연세치대
- ▲ 정 구: 경희치대

가 각각 우승, 각 종목마다 우승배
가 수여됐고 종합 우승교인 경희치
대에는 우승기가 수여됐다.

□ 古典刺繡 蒐集品 展示會
朴永淑 乙支病院 齒科科長

朴永淑 을지병원 치과과장이 심
혈을 기울여 20여년 동안 전국곳곳
에서 수집한 2백여 점의 한국 고유
전통자수 전시회가 지난 5일부터
서울 경복궁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
7월말까지 열린다.

『朴永淑 한국고전 자수 5백년전』
이란 타이틀 아래 생활자수와 감상
자수, 불교 자수 등 3개 파트에 가
장 오래된 14세기 고려 때 작품 西
季盆景圖(4폭 평풍)와 騎虎 신선도
(35×36)를 비롯, 임진왜란 이전의
많은 작품들이 전시됐는데 왕가의
장식 자수부터 서민의 베개 모서리
까지 출품돼 한국전통 자수의 모습
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78년도 齒科人的 밤 盛了 바이엘덴탈 후원으로

金東順·李烈熙·文洪祚씨 金賞 受賞

78년도 제 5회 「齒科人的 밤」이
지난 3일 세종호텔 해금강 홀에서
齒科醫學社 주최 「바이엘덴탈」 후
원으로 개최되어 齒科醫學社 金賞
이 金東順 前齒協회장, 李烈熙 慶
北醫大 齒醫學科長, 文洪祚 대한齒
友會長 등에게 수여됐다.

齒科界 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齒科人的 밤에서 徐
永圭同社회장은 인사를 통해 『국민
의 구강보건 담당자로서 시대적 요
구에 대처해 나가고 치과인들의 유
대강화로 발전을 기하자』고 강조했다

으며 池憲澤 齒協회장은 축사에서
『齒科界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은 물론 齒科界의 메스컴으로
齒界가 바라는 바를 찾아서 課題해
결의 길을 던져주기 바란다』고 당
부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金賞 이외에
學界에서 梁源植씨 등 13명과 開業
街에서 高鎭洙씨 등 5명에게 각각
감사패가 수여됐고 多木洋行(대표·
金載坤) 등 5개 機材商社와 현대기
공소(대표·具安信) 등 10개 기공
소에도 감사패가 주어졌다.

□ 忠北會員 (清州市 開業會
員) 모내기예 나서

清州市 居住 忠北會員 13명과 事
務局 職員 2名 都合 15명은 金學聖

會長の 引率아래 지난 13日 淸州市 近郊 淸原郡 남일면 화당리에 양수 기로 퍼올린 논에 모를 심었다. 약

50餘坪의 논에 모내기를 마친 會 員들은 여가가 나는때로 앞으로 계 속 농촌 일손을 돕겠다고 말했다.

□ 釜山市齒科醫師會 첫 會長團會議

日 時: 1978. 5. 3 (水) 上午 8時
場 所: 本會 會議室
參 席 者: 金沆佑, 李周衡, 金鳳浩, 鄭昭永

機材 " : 金 善 一(新)
齒務 " : 李 光 國(新)
保險 " : 孫 光 雄(新)

案 件: 執行部(理事) 구성件
※ 1차적으로 理事진을 구성하고, 2차적으로 區會長, 總務, 班 長을 구성 임명한다.

總務理事: 李 元 容(新)
審查理事: 張 光 祥(新)
財務 " : 金 鶴 大(留)
公報 " : 崔 德 浩(新)
學術 " : 鄭 昭 永(留)

이상 8명의 선임을 결의함.
또한 各區會長은 다음과 같다.
東萊區 區會長: 金 相 一
北 區 區 會 長: 鄭 鐵 雄
釜山鎮區區會長: 李 亨 卓
南 區 區 會 長: 姜 達 模
東 區 區 會 長: 洪 昇 鎮
影島區 區會長: 全 昇 五
中 區 區 會 長: 姜 宗 錫
西 區 區 會 長: 李 勝 樹

□ 釜山市會 理事 事務인계 인수식

5月 16日 (火) 下午 7時 本會 會 議室에서 會長團 및 신구理事 全員 이 參席한 가운데 사무인계 인수식 이 거행되었다.

이날 金沆佑 會長은 인사말을 통 하여 "새로 취임된 理事任계 맡은 파 任務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 면서 "지난 2年間 會務수행에 노고 가 많으신 구理事에게 감사를 드리 며 앞으로는 會의 發展을 爲하여 더욱 힘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尙基中 전임 理事의 답사로 "지난 2年間 會長任을 보필하며 열 심히 노력을 했지만 여러가지가 미

숙하여 큰 성과를 건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후임이사에 게 會의 發展에 힘껏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신·구 이사의 사무 인계 인수가 끝나고 金沆佑 會長으로 부터 신임 이사에게 委屬狀을 전달하고 일반 토의 안건은

불필요한 사무 서류와 없는 비품 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산 소각처 리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얻도 록 가결, 모든 사무 절차를 끝마치 고 수경동 계원에서 간단한 만찬이 베풀어졌다.

□ 公職齒科醫師會 理事陣 構成

지난 5月 20日 定期總會에서 選 任된 公職齒科醫師會 會長團은(會 長: 黃聖明, 副會長: 崔翔默·宋英 鎬) 會長團會議를 召集하고 理事陣 을 다음과 같이 構成했다.
總務理事 金 英 洙 (서울大 齒大)

學術理事 朴 兌 源 (서울大 齒大)
財務理事 金 光 男 (")
公報理事 鄭 泰 英 (")
研突理事 李 義 雄 (延世大 齒大)
涉外理事 李 相 喆 (慶熙大 齒大)

以上

- 치과진료용 차트
- 의료보험용 차트
- 의료보험 청구명세서
- 의료보험 청구서
-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현 대 의 학 사

266-8398